

지역 매 아리

완주군 복합문화지구 일대 무장애나눔길 조성 본격 운영

완주군이 청사 뒤편에 자리한 복합문화지구 누에(구 잠업시험장) 일대를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27일 완주군이 따르면 무장애나눔길은 교약약자 층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완주 무장애나눔길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8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복원기공지원으로 추진돼 최근 조성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캠핑라운지, 커뮤니티실, 누에아트홀, 완주테니스장 시설을 하나의 코스로 묶는 체험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완주 무장애나눔길에는 뽕나무 체험장, 뽕나무도서관, 뽕나무 품종전시원, 다목적 잔디마당, 잔디수로 등을 조성해 그동안 소외됐던 교약약자들의 접근성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의정비 21.15% 확정

군위원 10명 만장일치 의결 ... 인상안 찬성 44명, 적정 22명, 무효표 46표

완주군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안이 21.15%로 확정됐다. 도내 최초로 의정비인상안이 확정되면서 완주군의정비심의위의 무소불위 권력과 이를 압목적으로 지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도덕성이 두고두고 화자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서 개표 결과, 완주군의정비 인상안 찬성 44명, 적정 22명, 높다 16명으로 나타났고, 무효표가 46표로 가장 높게 나오면서 또다른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김영기) 12개 단체가 26일 완주군의정비인상안 21.15% 반대안을 분별명했고,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무효 가치분 선정'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힌 터여서

완주군의정비심의위(위원장 전택군)는 27일 오전 9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차 회의 때 결정한 의정비 인상률 21.15%를 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문조사서 개표 결과, 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연간 3,585만원(월 299만원)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기표한 주민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 22명, 높다 16명이었다. 무효표는 46표였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6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150여명의 소수 주민만 참여했고, 설문조사에는 128명만 응해 '전체 군민여론을 담을 수 없다'는 여론에 공청회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의정비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월정수당이 21.15% 인상된 4,065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된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올해까지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완주군의회는 내년 10월 의정활동을 늘려 110일 의정활동 하게된다. 이를 의정활동 1일로 환산하면 36만 9,545원을 수령하게 되며, 오는 2019년 일반 직장인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1일 6만6,800원이다. 이는 의정활동비가 일반 직장인 하루 일당에 비해 5.5배나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심의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가 내년 초 임시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의정비가 내년 7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일괄 지급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생활체육 스키캠프 교실 참가자 모집

김제시, 내년 1월 2일-8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체육회에서는 '2019 김제시 생활체육 스키캠프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9 김제시 생활체육 스키캠프 교실'은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진행되며 레포츠를 통한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학업으로부터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참가자 모집은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월 8일 오후 5시까지 7일간 진행되며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관내 초등학생 만10~13세(2018년 기준 초4~6학년)를 대상으로 35명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장소는 김제시체육회 사무국(시민운동장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55,000원으로 참가신청서 작성 후에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면 된다. 신규 참가자가 우선순위가 되며, 2018년도에 참여한 학생은 우선순위에 제외되고 인원미달로 인한 추가접수 기간에 접수가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만경보건지소 신축 준공식

김제시는 27일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직능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경보건지소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만경보건지소는 25년이상 지난 건물로 노후되고 비좁아 주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역주민 또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신축된 보건지소는 건축면적 337㎡, 지상2층 규모로 현대화된 내과진료실, 건강증진실, 처치실, 소독실, 공보의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만경보건지소 신축은 김제시가 놓여 추진중인 공공사업에 선정돼 국비 44만4000원, 지방비 22만2000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6만6000원으로 추진됐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은 "보건지소 신축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기관으로써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18 완주군을 빛낸 10대 뉴스' 설문조사 1위

완주군 먹거리 정책, 밀라노 협약상 수상

완주군의 2018년 최고의 뉴스는 완주의 먹거리 정책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밀라노 협약상 수상소식이었다. 27일 완주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완주군을 빛낸 10대 뉴스'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은 '2018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먹거리 정책 우수도시 시상식에서 아시아 최초로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을 거머쥔 소식이었다. 이는 전체 득표율의 33%를 차지했다. 이번 수상은 국내에서는 이미 '로컬푸드 1번지'로 손꼽히는 완주군이 국

내를 넘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은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자료에서도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을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2위는 새정부 정부혁신평가 평가 군 단위 1위(25%)가 선정됐다. 지난 7월 완주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자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18 평가에서 완주군은 군 단위 1위를 또 다시 기록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

되는 기쁨을 토했다. 3위는 어린이 모험놀이시설 놀토피아 개정의 인기폭발(25%)이었다. 올봄 고산면 소항리 일원에 개정한 실내용 어린이 모험놀이시설인 놀토피아는 개장 7개월 만에 5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4위는 아동정책분야 전국 1위(23%) 소식이였다. 완주군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정책실행계획 평가부문에서 전국 1위를 석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5위는 주민참여예산 2년 연속 수상(23%)이 차지했다.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군단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017년도 우수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쾌거다. 뒤이어 ▲6위 국가예산 3623억원 확보(20%) ▲7위 테니스장 완공 종합스포츠타운 탄력(20%) ▲8위 전북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선정(17%) ▲9위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5개 전 분야 석권(17%) ▲10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유치 확정(14%)이 꼽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문항은 부서별로 목록을 취합해 이뤄졌으며, 1인당 5건 이하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설문에는 총 181명이 참여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송승현 김제경찰서장 통합관제센터 근무요원 감사장 수여

송승현 김제경찰서장은 김제시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박종주(정원경찰) 등 관계요원 2명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종주씨는 김제시 상수도 가압장과 배수지 등의 시설물 관리와 수량조절, 급수 관리를 위하여 항상 면밀한 자세로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한 공로와 이번 퇴직을 앞두고 33년간 성실히 근무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였다.

장경화 관제요원 대표와 안가영 총무는 2017년부터 2년간 관제센터에 근무하면서 관제요원들의 화합과 사기양양 그리고 불편해소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특히 관제요원들이 근무 중 실시간 범인검거 등 주요 실적을 거둔 관제요원들을 위해 선물과 꽃다발 준비하는 등 관제요원들이 사기를 북돋우는데 노력하여 2017년에 데이트 폭력 현행범 검거 등 3건의 실적과 2018년에 차량별이 절도범 등 5건의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2018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먹거리 정책 우수도시 시상식에서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 수상했다.

신풍동 통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 신풍동 통장협의회(협의회장 전지천)는 27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임정업, 민간위원장 윤영훈)에 기탁했다. 복지허브화 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과 헌신을 실천해왔고 이 성금은 앞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지천 협의회장은 "이웃을 돕는다는 건 내가 먼저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가능한 것이다"며 "이 성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찾아가 희망이 되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성금을 기부하여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정업 신풍동장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는 통장협의회에 감사하다"며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풍동 통장협의회는 62개 마을을 통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